

2019년 1월 2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협상 기대에 힘입어 반등 성공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잘하고 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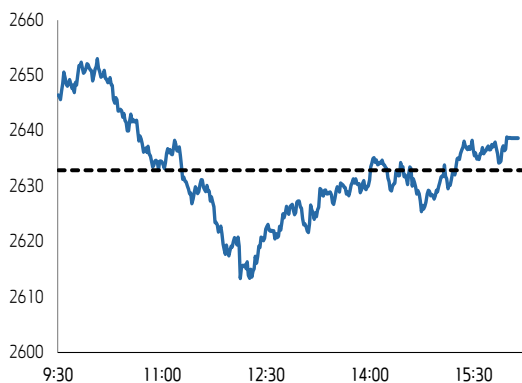
미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섯다운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매물 출회. 특히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장기화된 “섯다운으로 미국 성장률이 둔화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매물 출회. 다만, 장 후반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을 잘하고 있다” 라고 발표하자 반등 성공(다우 +0.70%, 나스닥 +0.08%, S&P500 +0.22%, 러셀 2000 -0.22%)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337.25 를 기록. 이는 불확실성이 높았던 지난 미 대선(307.54) 당시를 넘어섰으며 역사적 평균인 101 의 3 배 이상. 특히 중국이 20 년 평균(147)보다 무려 6 배 이상 많은 929.51 를 기록.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불확실성이 급증 했으며, 이 여파로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경계감이 높은 상태.

특히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상승하면 향후 경제 성장과 고용 감소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 지수 중 하나인데, 이 지수가 급등한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실제 오늘 미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회 위원장이 “섯다운이 지속될 경우 1 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0%p 를 기록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자 하락 전환. 이는 지난해 연말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였던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10 대 주요 신문사 검색과 미 의회 예산국 연방 세금 코드 조항 목록, 필라델피아 연은의 서베이 등을 참고로 작성한 지수. 실제 거시 경제 변수와 상당한 역학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혀져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27.78	+0.47	홍콩항셱	27,008.20	+0.01
KOSDAQ	695.63	+0.16	영국	6,842.88	-0.85
DOW	24,575.62	+0.70	독일	11,071.54	-0.17
NASDAQ	7,025.77	+0.08	프랑스	4,840.38	-0.15
S&P 500	2,638.70	+0.22	스페인	9,128.80	+1.01
상하이종합	2,581.00	+0.05	그리스	631.32	+0.18
일본	20,593.72	-0.14	이탈리아	19,400.15	-0.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IBM 8.46% 급등

IBM(+8.46%)은 전일 클라우드서비스 매출 증가를 이유로 가이던스를 상향 하자 급등 했다. P&G(+4.87%)는 개선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콤케스트(+5.49%)와 유나이티드 테크(+5.38%) 또한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ASML(+1.64%)은 일부 고객이 주문을 연기 했기 때문에 1분기 매출이 약할 것이라고 발표 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견고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발표 하자 상승 했다. 반면, 테슬라(-3.79%)는 생산 감소를 이유로 투자자의견이 하향 조정된 여파로 하락 했다. 쉘(-4.64%) 케리스데일 캐피탈이 “재앙의 위에 처하고 있다” 라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텍사스인스트루먼트(-1.17%)는 시간외로 1% 넘게 상승 중이다. 자일링스(-0.99%)는 시간외로 2% 가까이 상승 중이다. 램리서치(-0.40%)는 시간외로 6% 넘게 급등 중이다. 포드(-1.88%)도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시간 외로 1% 넘게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62%	대형 가치주 ETF	+0.18%
에너지섹터 ETF	-1.86%	중형 가치주 ETF	-0.05%
소매업체 ETF	+0.09%	소형 가치주 ETF	-0.13%
금융섹터 ETF	+0.12%	배당주 ETF	-0.08%
기술섹터 ETF	+0.34%	변동성 ETF	-1.43%
소셜 미디어업체 ETF	-0.40%	대형 성장주 ETF	+0.04%
인터넷업체 ETF	-0.20%	중형 성장주 ETF	-0.01%
리츠업체 ETF	+0.06%	소형 성장주 ETF	-0.38%
주택건설업체 ETF	-0.40%	신흥국 고배당 ETF	+1.33%
바이오섹터 ETF	-0.8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85%
헬스케어 ETF	+0.11%	하이일드 ETF	+0.17%
곡물 ETF	+0.29%	물가연동채 ETF	-0.12%
반도체 ETF	-0.40%	Long/short ETF	+0.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6.54	-1.00%	-0.49%	+9.99%
소재	328.28	-0.65%	+1.69%	+7.75%
산업재	578.99	+0.18%	+1.70%	+10.50%
경기소비재	833.88	+0.23%	+0.22%	+12.94%
필수소비재	539.17	+1.17%	+1.21%	+4.50%
헬스케어	1,036.65	+0.13%	+1.34%	+8.21%
금융	427.10	+0.04%	+3.42%	+12.57%
IT	1,131.00	+0.41%	+0.83%	+8.78%
커뮤니케이션	147.19	+0.25%	-1.23%	+10.18%
유틸리티	273.07	+1.08%	+2.06%	-0.11%
부동산	202.46	+0.09%	+1.27%	+5.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전기전자 업종 주목

MSCI 한국지수 ETF 는 1.38% MSCI 신흥지수 ETF 는 1.0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771 계약)로 0.10pt 하락한 274.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5.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다운 장기화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미 증시가 시사하는 바는 증시 주변 요인(셋다운 장기화, 브렉시트 불확실성, 미-중 무역협상 경계감) 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증시도 증시 주변 보다는 개별 기업 이슈에 주목할 것을 시사한다.

한편, 반도체 관련 업종인 ASML 은 중국향 수요가 견고하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시간외로 실적을 발표한 램리서치,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은 1~6% 내외 상승 중이다. 이에 힘입어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시간 외로 상승 중이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더불어 전기 전자 업종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어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제조업지표 개선

1 월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는 전월(-8)이나 예상치(-3) 보다 개선된 -2 로 발표되었다. 비록 기준선인 0 을 하회했다는 점, 그리고 세부항목 중 신규수주(-9→-11) 둔화는 부담이지만, 예상 보다 개선된 결과를 발표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11 월 FHFA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 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5.8% 상승 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된 결과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강세

국제유가는 달러약세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락 했다. 섣다운 장기화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유입되며 매물 출회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일본의 재정 지출 사용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된 점은 낙폭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섣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을 매우 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 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EU 가 영국이 먼저 요구하고 EU 27 개국 모두 찬성하면 브렉시트 연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주장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섣다운 장기화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우려는 상승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3%, 철근도 0.3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62	-0.74	+0.44	Dollar Index	96.131	-0.18	+0.07
브렌트유	61.14	-0.59	-0.29	EUR/USD	1.138	+0.18	-0.11
금	1,290.20	+0.05	-0.36	USD/JPY	109.59	+0.20	+0.46
은	15.380	+0.36	-1.54	GBP/USD	1.3066	+0.86	+1.40
알루미늄	1,909.00	+1.38	+2.69	USD/CHF	0.9948	-0.25	+0.45
전기동	5,951.50	+0.28	-0.31	AUD/USD	0.7142	+0.25	-0.36
아연	2,620.00	+1.71	+4.95	USD/CAD	1.3348	-0.05	+0.70
옥수수	378.75	-0.07	+2.02	USD/BRL	3.7594	-1.20	+0.62
밀	526.00	+0.91	+2.94	USD/CNH	6.7922	-0.34	+0.45
대두	915.00	+0.63	+2.43	USD/KRW	1127.30	-0.28	+0.64
커피	103.40	+0.05	+2.07	USD/KRW NDF1M	1125.50	-0.45	+0.5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41	+0.17	+1.91	스페인	1.311	-2.10	-6.20
한국	1.985	-1.00	+1.00	포르투갈	1.711	-1.30	-7.40
일본	0.005	+0.20	-0.50	그리스	4.158	+4.70	-6.30
독일	0.225	-1.10	+0.10	이탈리아	2.751	+1.20	-0.20